

#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 연구

김종률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검토

1. Krathwohl *et al.* (1964: 95)의 정의적 영역
2. 김중신(1999: 37)의 문학 교수·학습 활동의 범주
3. 이삼형 외(2007: 269)의 정의 중심적 사고 구조
4. 박인기 외(2005: 46)의 정의 중심적 사고

### III. 정의적 사고의 유형 설정

- |           |           |
|-----------|-----------|
| 1. 정서적 사고 | 2. 의지적 사고 |
| 3. 관계적 사고 | 4. 윤리적 사고 |
| 5. 형상적 사고 | 6. 심미적 사고 |

### IV. 맺음말

## I. 머리말

Krathwohl *et al.* (1964)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 분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인지적 사고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의적 사고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의(affectivity)라는 개념이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됨으로써 그 영역을 유형화하는 데에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인지적 사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소홀 현상이 아닐까 한다.

인지적 사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교육 목표와 교수·학습 과정 및 그 평가까지 폭넓게 펼쳐지는데, 특히 평가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수준의 평가인 수능 국어영역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사고 용어들은 모두 인지적 사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의적 사고 영역에 대한 용어는 아니다. 물론 정의적 사고 영역을 선택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나 국가 수준의 평가가 인지적 사고에 대한 측정으로 쏠려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인지적 사고나 정의적 사고 중 어느 하나의 사고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두 사고의 상보적 작용에 따른 조화로운 사고의 작용과 더불어 그 작용에 필요한 사고교육이 필요하다. 이삼형 외(2007)에 의하면, 국어교육에서 정의적 사고와 인지적 사고는 상호 교섭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텍스트 수용과 생산의 과정에서 두 사고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국어활동은 두 사고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적 사고를 어떻게 신장하고 계발할 것인가의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의적 사고에 어떤 유형을 설정할 것이며, 그 하위 유형에는 또 어떤 사고가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의적 사고에 대한 신장과 계발의 기저에 정의적 사고의 유형에 대한 설정과 그에 따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대한 설정과 합의는 인접 학문에서 추구하는 정의적 사고의 보편성과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의적 사고를 문학영역의 중심적 사고에 국한하기보다 문법영역과 언어사용영역에까지 확장할 필요도 있다. 혹자는 ‘정의적 사고가 문법영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문법영역의 연구로 김은성(2006a, 2006b), 고희성(2010), 김혜숙(2012)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따라서 텍스트 수용과 생산을 구분하거나 교과영역을 별도로 나누어 정의적 사고 영역의 폭을 좁힐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의적 사고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

1 다만, 이들의 연구는 문법교육의 태도 영역(김은성, 2006a, 2006b), 정의적 특성(고희성, 2010), 통합형 문법교육의 기본 목표의 일부 내용(김혜숙, 2012)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의적 사고의 유형과는 일정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 1. Krathwohl *et al.* (1964: 95)의 정의적 영역

Krathwohl *et al.* (1964)의 정의적 영역은 인간의 흥미 · 태도 · 감상 · 가치관 · 감정 · 신념 등에 관련되는 교육 목표의 영역으로서, 어떤 일에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복잡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일관성 있는 인격 · 양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606). 이들이 제시한 정의적 영역의 범주와 그 세분(細分)은 다음과 같다.

#### 1.0 감수(Receiving)

##### 1.1 감지(Awareness)

##### 1.2 자진감지(Willingness to receive)

##### 1.3 선택적 주의 집중(Controlled or selected attention)

#### 2.0 반응(Responding)

##### 2.1 묵종반응(Acquiescence in responding)

##### 2.2 자진반응(Willingness to respond)

##### 2.3 반응 후의 만족(Satisfaction in response)

#### 3.0 가치화(Valuing)

##### 3.1 가치수용(Acceptance of a value)

##### 3.2 가치선택(Preference for a value)

##### 3.3 가치 신념화(Commitment)

#### 4.0 조직화(Organization)

##### 4.1 가치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of a value)

#### 4.2 가치체계의 조직(Organization of a value system)

#### 5.0 인격화(Characterization)

##### 5.1 일반화된 행동체계(Generalized set)

##### 5.2 인격화(Characterization)<sup>2</sup>

이러한 교육 목표 분류는 정의적 사고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정의적 사고에 대한 유형적 분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에 의하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목표는 정의적 영역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태도, 흥미, 가치 등 정의적 특성을 개인이 내면화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정의적 교육 목표를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Krathwohl *et al.*(1964)의 정의적 영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적 사고 영역의 유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준이나 정도에 따른 정의적 사고의 위계화이다. Krathwohl *et al.*(1964)은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다섯 가지 범주 사이의 위계화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위계화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정의적 사고의 유형에 대한 위계화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수준 높은 사고와 수준 낮은 사고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앤더슨을 포함한 심리학계는 고도의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인지구조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사고행위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다 고등 수준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허경철, 2013: 124). 인지적 사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정의적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사고를 수준이나 등

---

2 Krathwohl *et al.*(1964)의 정의적 영역의 범주와 그 세분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606)를 참고하였다.

3 한창훈(2003)에 의하면, 정서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급으로 매기는 것은 사고 자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정의적 사고 그 자체로 분류되어야 하며, 또한 그 유형은 사고의 수준이나 정도에 따른 위계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 김중신(1999: 37)의 문학 교수·학습 활동의 범주

김중신(1999)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정은 흔히 정의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정의적 활동이 상당한 정도의 인지적 활동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의 감상은 인지적 활동과 정의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수·학습 활동의 범주를 <표 1>과 같이 도식화한다.

표 1. 문학 교수·학습 활동의 범주

| 영역 \ 속성 | 수렴      | 발산      |
|---------|---------|---------|
| 인지적 활동  | 알기(認識)  | 따지기(分辨) |
| 정의적 활동  | 느끼기(感應) | 즐기기(享有) |

김중신(1999)에 의하면, 정의적 활동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서적 동감에 기인하며, 정서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감각에 의거한 감응, 즉 느끼기(feeling)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상 대상이 형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향유, 즉 즐기기(enjoying) 활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렴적 속성으로서의 느끼기와 발산적 속성으로서의 즐기기(향유)는 감상 주체의 활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 자체가 정의적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느끼기(감응)와 즐기기(향유)는 정서적

---

위계화된 교육이라든가 발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한다.

활동이며, 이 활동이 정의적 활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감각에 의거한 느낌에서 비롯되는 ‘정서’가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이삼형 외(2007: 269)의 정의 중심적 사고 구조

김중신(1999)의 문학 교수·학습 활동의 범주는 이삼형 외(2007)에서 정의 중심적 사고 구조로 변화되는데, <표 2>와 같다.

표 2. 정의 중심적 사고의 구조

| 대상 \ 활동 | 성격                |              | 목적          |
|---------|-------------------|--------------|-------------|
|         | 수렴                | 발산           |             |
| 사상(인지)  | 알기(認識)            | →<br>따지기(分辨) | 깨침(교훈, 깨달음) |
| 감정(정의)  | 느끼기(感應) → 즐기기(享有) |              | 울림(쾌락, 즐거움) |

이러한 구조는 <표 1>과 달리 수렴과 발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사고의 흐름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목적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격의 느끼기(감응)와 즐기기(향유), 목적의 쾌락과 즐거움이 모두 감정의 대상으로, 이 사고가 정의적 사고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사고가 정의적 사고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 구조는 감정에 국한하고 있기에 감정이 곧 정의적 사고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 4. 박인기 외(2005: 46)의 정의 중심적 사고

박인기 외(2005)는 문학교육에서 도모하는 사고력을 좀 더 구체화하면 언어적 사고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 추리, 비판, 논리적 요소들을 가리켜 인지적 사고라 한다면, 정서적, 심미적, 윤리적 요소들은 정의적 사고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와 정의가 구분되는 별개의 사고 과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들 사고 중에서 정의 중심적 사고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사고: 반응, 연상, 내면화

심미적 사고: 미추(美醜) 판단, 호오(好惡) 판단, 형상화

윤리적 사고: 선악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

이러한 유형화는 앞서 검토한 바와 달리 정서적, 심미적, 윤리적 사고를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이 유형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정서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된 반응, 연상, 내면화는 Krathwohl *et al.*(1964)의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와 연관됨으로써, 정서적 사고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들 하위 유형들은 정의적 특성을 개인이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수용하는 것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심미나 윤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즉, 반응, 연상, 내면화는 정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심미나 윤리에 대한 반응, 연상, 내면화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심미적 사고나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설정된 ‘-판단’은 정의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종률(2014)에 의하면, 판단은 인지적 사고의 한 유형인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 중의 하나라고 한다. 물론 판단이 미추, 호오, 선악, 가치와 합성적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



더라도 이들 용어들은 심미적 사고나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중률(2011)에 의하면, 이들 하위 유형을 정의 중심적 사고에서 다루어야 한다면, 비판적 심미 사고(또는 비판 심미적 사고)나 비판적 윤리 사고(또는 비판 윤리적 사고) 정도가 알맞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단의 앞서는 용어가 어떠하든 이들은 모두 비판적 사고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단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미적 사고나 윤리적 사고의 본령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상화’와 ‘세계관’은 심미적 사고나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구인환(2006b)에 의하면, 형상화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내용, 주제)을 ‘문학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실감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작자의 상상에 의한 노력이 독자에게 감동의 형식으로 인식될 때 형상화되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용환(1999)에 의하면, ‘문학적 요소’의 구체적 실현을 지칭하는 형상화라는 용어는 문학의 본질을 밝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상화는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인 형상적 사고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여러 가지 요소 또는 문학적 요소가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할 것이다.

세계관은 우주 또는 세계 만물의 본성이나 발전, 인류의 발생·발전·미래 등 인간 삶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견해로서, 세계관에는 철학적·윤리적·미적·자연과학적 견해가 일정한 방식으로 녹아 있다. 특히 문학의 경우 골드만은 한 그룹의 성원을 모아 주고 다른 그룹에 대립되게 하는 한 그룹의 감정이나 사고의 총체를 세계관이라고 한다(구인환, 2006a: 125). 이렇게 보면 가치관이 윤리적 사고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나 사고의 총체라는 점에서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세계관은 객관적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는 주체의 실천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면서, 나아가 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반성하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세계관의 목적이 대상에 대한 ‘이해’와 주체의 실천적 ‘파악’에 있다면, 이는 인지적 사고의 한 유형인 이해적 사고와 밀접하며(김종률, 2014: 340), 또한 삶에 대한 ‘반성’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위 인지적 사고인 성찰적 사고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세계관을 윤리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 III. 정의적 사고의 유형 설정

정의(情意, affectivity)는 인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지·운동 기능과 함께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한 영역이다. 과학적·사실적 의미와 대립되는 용어로,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태도·기질·흥미·신념·정서·가치관·동기 등의 심리적 부분이다. 한편 타일러는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를 가치와 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국어교육에서의 정의 학습 요소로서 흥미, 가치, 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의 학습 요소는 교육적 보편성을 띠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심미적 사고나 상상력 같은 국어교육의 특수적 국면에서의 정의 영역을 아울러 생각할 수도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678-679).

그렇다면 정의에 대한 설명과 교육적 응용은 감정, 느낌, 공포 따위의 일차적 정의에 대한 설명과 기제만으로 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정의를 감정 경험만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심리학의 학문적 관심에 불과한 것으로 국어과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박인기, 2000: 14). 따라서 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정의적 사고(affective thinking)는 현실적 체험과 상상적 체험을 통한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과 더불어 언어로 인간과 세계를 ‘의미 있게 의도화’(박인기, 2000: 16) 하는 사고로서,<sup>4</sup> 비가시성, 방향성 또는 경향성, 학습성, 관계성, 일관성 및 안정성의 특성을 지닌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605).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지닌 정의적 사고는 사고의 속성이나 가치와 관련된 질적 측면으로서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사고의 수행과 관련된 과정적 측면으로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를 들 수 있으며,<sup>5</sup>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은 논의의 과정에서 밝히고자 한다.

## 1. 정서적 사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정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주

4 황정현(2003)에 의하면,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 습관, 흥미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한다.

5 국어교육에서 정의적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 유형을 6가지로 규정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들 중 일정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과 더불어 6가지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논의된 경향이 있어 정의적 사고의 유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정의적 사고의 유형 중, 정의(情意)의 의(意)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의지적 사고는 논의의 대상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적 사고의 6가지 유형 설정은 사고의 계발이나 신장 이전 단계에 선행되어야 할 국어과 사고 유형화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인지적 사고와의 균형 있는 사고 계발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체에게 신체적 표출을 수반하는 감정<sup>6</sup>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감정으로서의 쾌(快)·불쾌(不快) 이외에 분노·공포·슬픔·연민 등의 감정을 가리킨다고 한다. 특히 문학에서 정서는 감화적 부분으로서 작품의 주요 요소가 되며, 이러한 문학적 정서에는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성은 넓은 의미에서 지각이나 직관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판단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사고와 더 밀접하다. 坂部惠 외(이신철 역, 2009)에 의하면, 지성은 개념 능력으로서의 지성, 포섭 능력으로서의 판단력, 추론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과 추론을 포괄하는 지성은 정의적 사고 영역에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情意)의 정(情)은 정서를 뜻하고, 의(意)는 의지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대등한 상태에서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지적 사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할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에 의하면, 외적 자극이나 내적 상념에 관련되어 느껴지는 쾌·불쾌의 상태를 감정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 감정의 분화된 상태를 정서라고 하며, 그 예로는 공포·환희·분노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정서가 감정의 분화된 상태라면, 정서는 감정보다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리고 구인환(2006a)에 의하면, 문학 작품에서 정서는 ‘언어에 의해 환기되는 감정의 내적 반응’으로, 일반적인 감정인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다고 한다.

그러나 ‘슬픔’이 감정인가, 정서인가의 논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언

6 감정은 일종의 생각이다. 다른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틀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조차 부와 명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같이 잘못된 감정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정이 없다면 판단도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독자에게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독자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써야만 한다(M. Nussbaum, 1992; Matthew Lipman, 박진환 외, 2005: 341-342에서 재인용). 따라서 감정도 일종의 사고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7 한창훈(2003)에 의하면, 감정이 감각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심리 작용이라면, 정서는 그것이 한 단계 복잡화, 체계화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권의 문화적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민재원, 2013: 25), 감정에 해당하는 용어와 정서에 해당하는 용어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러면서 감정에 해당하는 용어가 정서에 해당하는 용어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서의 하위 용어와 감정의 하위 용어를 세분화하기는 쉽지 않다.<sup>8</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정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그러면서 일반적인 감정의 분화된 상태로서의 개념을 지닌 정서를 수용하여 감정적 사고라는 용어보다 정서적 사고라는 용어를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정서적 사고란 외적 자극이나 내적 상념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 상태나 감정의 분화된 상태를 구성하는 정신 작용이다.<sup>9</sup>

한국어의 정서 단어를 연구한 한덕웅 외(2000)에 의하면, 그 단어가 834개이다. 그리고 박인조(2001)에 의하면, 그 단어가 434개이다.<sup>10</sup> 434개의 한국어 정서(감정) 단어 목록은 전문가들에 의한 감정 단어의 선별과 일반인들에 의한 원형성(적절성) 및 친숙성 조사의 이원적 접근을 통해 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정서 단어를 이 연구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 중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것들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감은 다를 수 있지만 ‘애타다’와 ‘애틸다’, ‘가련하다’와 ‘촉은하다’는 사전적 의미가 같은데, 이러한 단어가 모두 실려 있으며, ‘설위하다’는 ‘서러워하다’의 준말인데 함께 실려 있다. 이 외에도 일상

8 최현석(2012)에 의하면, 느낌(felling)은 감정과 감각을 포함하는 것이고, 감정(정서)(emotion)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 반응으로 동기와 서로 엉켜 있으며, 정동(affect)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이며, 기분(mood)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감정보다 더 오래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느낌, 감정, 기분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의적 구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9 김종철(1996), 김대행 외(2013) 등은 정서를 인간의 정신적 작용으로 보고 있다.

10 이준웅 외(2008)에 의하면, 한국어 정서 단어들(265개)의 인지도 및 전형성 평가에서 대표 정서 단어는 115개라고도 한다.

생활에서는 쓰이고 있으나 ‘속시원하다’나 ‘싫증나다’처럼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형성과 친숙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정서 단어들 중 복잡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선택하여 정서적 사고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설정의 선별 기준은 첫째, 정서 단어 목록에서 원형성과 친숙성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중간 점수 이상인 단어이다. 원형성의 최고 점수는 5.98점(기쁘다)이고 최저 점수는 2.25점(회오)이다. 이것의 중간 점수는 4.11점이다. 그리고 친숙성의 최고 점수는 6.19점(기쁘다)이며 최저 점수는 1.70점(회오)이다. 이것의 중간 점수는 3.94점이다. 이 둘의 중간 점수 이상을 충족할 때이다.

둘째, 선별된 정서 단어 중에서 그 단어의 의미망에 두 가지 이상의 정서 단어를 포함할 때이다.

셋째, 선별되지 않은 정서 단어 중 그 단어의 의미망에 두 가지 이상의 정서 단어가 원형성과 친숙성의 중간 점수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이다.

넷째, 정서 단어 목록에는 없지만 한덕웅 외(2000)의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에 있으면서 그 단어의 의미망에 두 가지 이상의 정서 단어가 원형성과 친숙성의 중간 점수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이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어 의미망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정서 단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여섯째,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어 의미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경우는 대표적인 정서 단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일곱째,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정서 단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정서 단어와 그 의미망을 <표 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표적인 정서 단어와 그 의미망

| 단어   | 원형성  | 친숙성  | 단어 의미망             | 원형성  | 친숙성  |
|------|------|------|--------------------|------|------|
| 고독하다 | 4.57 | 5.18 | 외롭다 <sup>1</sup>   | 5.02 | 5.66 |
|      |      |      | 쓸쓸하다 <sup>1</sup>  | 4.84 | 5.41 |
|      |      |      | 적적하다 <sup>2</sup>  | 3.89 | 3.69 |
|      |      |      | 심심하다 <sup>3</sup>  | 4.43 | 5.76 |
|      |      |      | 지루하다 <sup>4</sup>  | 4.72 | 5.56 |
|      |      |      | 따분하다 <sup>5</sup>  | 4.53 | 5.34 |
|      |      |      | 심증 <sup>5</sup>    |      |      |
| 공포   | 4.31 | 5.29 | 두렵다 <sup>1</sup>   | 4.75 | 5.40 |
|      |      |      | 불안하다 <sup>2</sup>  | 4.69 | 5.75 |
|      |      |      | 꺼리다 <sup>2</sup>   | 3.86 | 4.36 |
|      |      |      | 싫어하다 <sup>3</sup>  |      |      |
|      |      |      | 싫다 <sup>4</sup>    | 5.03 | 5.68 |
|      |      |      | 염려스럽다 <sup>2</sup> |      |      |
|      |      |      | 걱정하다 <sup>3</sup>  | 4.88 | 6.02 |
|      |      |      | 무섭다 <sup>1</sup>   | 5.06 | 5.82 |
|      |      |      | 겁나다 <sup>2</sup>   | 4.77 | 5.43 |
| 동경하다 | 4.31 | 4.40 | 그림다 <sup>1</sup>   | 5.68 | 5.82 |
|      |      |      | 애타다 <sup>2</sup>   | 4.40 | 4.64 |
|      |      |      | 애틁다 <sup>2통</sup>  | 4.02 | 3.82 |
|      |      |      | 답답하다 <sup>3</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3</sup>  | 4.82 | 5.56 |
|      |      |      | 아프다 <sup>4</sup>   |      |      |
|      |      |      | 괴롭다 <sup>5</sup>   | 4.76 | 5.42 |
|      |      |      | 들뜨다 <sup>1</sup>   | 5.03 | 5.16 |
| 분노하다 | 4.76 | 5.13 | 분개하다 <sup>1</sup>  | 4.12 | 4.11 |
|      |      |      | 분하다 <sup>2</sup>   | 4.59 | 5.06 |
|      |      |      | 화나다 <sup>3</sup>   | 4.86 | 5.65 |
|      |      |      | 원통하다 <sup>3</sup>  | 4.05 | 4.15 |
|      |      |      | 섭섭하다 <sup>3</sup>  | 4.90 | 5.74 |

|      |      |      |                     |      |      |
|------|------|------|---------------------|------|------|
|      |      |      | 서운하다 <sup>4</sup>   | 4.69 | 5.76 |
|      |      |      | 아쉽다 <sup>4</sup>    | 5.20 | 5.84 |
|      |      |      | 불만족스럽다 <sup>5</sup> |      |      |
|      |      |      | 성내다 <sup>1</sup>    | 4.36 | 4.92 |
|      |      |      | 노엽다 <sup>2</sup>    | 3.40 | 3.38 |
| 불안하다 | 4.69 | 5.75 | 불편하다 <sup>1</sup>   | 4.27 | 5.61 |
|      |      |      | 거북하다 <sup>2</sup>   | 3.92 | 4.66 |
|      |      |      | 어색하다 <sup>3</sup>   |      |      |
|      |      |      | 겸연쩍다 <sup>3</sup>   | 3.93 | 3.86 |
|      |      |      | 쑥스럽다 <sup>4</sup>   | 4.61 | 5.45 |
|      |      |      | 우습다 <sup>5</sup>    | 4.46 | 5.71 |
|      |      |      | 미안하다 <sup>4</sup>   | 5.02 | 5.97 |
|      |      |      | 부끄럽다 <sup>5</sup>   | 4.97 | 5.63 |
|      |      |      | 괴롭다 <sup>2</sup>    | 4.76 | 5.42 |
|      |      |      | 조마조마하다 <sup>1</sup> | 4.57 | 4.92 |
|      |      |      | 염려하다 <sup>2</sup>   | 4.15 | 4.93 |
|      |      |      | 걱정하다 <sup>3</sup>   | 4.88 | 6.02 |
|      |      |      | 초조하다 <sup>2</sup>   | 4.67 | 5.43 |
|      |      |      | 애타다 <sup>3</sup>    | 4.40 | 4.64 |
|      |      |      | 애꿎다 <sup>3통</sup>   | 4.02 | 3.82 |
|      |      |      | 답답하다 <sup>4</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5</sup>   | 4.82 | 5.56 |
| 불행하다 | 4.36 | 5.52 | 불만족하다 <sup>1</sup>  | 3.80 | 4.52 |
|      |      |      | 슬프다 <sup>1</sup>    | 5.08 | 5.85 |
|      |      |      | 괴롭다 <sup>1</sup>    | 4.76 | 5.42 |
| 비애   | 3.66 | 3.97 | 슬프다 <sup>1</sup>    | 5.08 | 5.85 |
|      |      |      | 아프다 <sup>2</sup>    |      |      |
|      |      |      | 괴롭다 <sup>2</sup>    | 4.76 | 5.42 |
|      |      |      | 서러워하다 <sup>1</sup>  | 4.62 | 5.37 |
| 안락하다 | 4.56 | 4.50 | 편안하다 <sup>1</sup>   | 5.47 | 5.95 |
|      |      |      | 편하다 <sup>2</sup>    | 5.23 | 6.01 |



|    |      |      |                               |      |      |
|----|------|------|-------------------------------|------|------|
|    |      |      | 좋다 <sup>2</sup>               | 5.90 | 6.12 |
|    |      |      | 즐겁다 <sup>1</sup>              | 5.87 | 6.09 |
|    |      |      | 호뭇하다 <sup>2</sup>             | 5.26 | 5.46 |
|    |      |      | 흡족하다 <sup>3</sup>             | 4.90 | 4.90 |
|    |      |      | 만족하다 <sup>3</sup>             | 5.34 | 5.92 |
| 애정 | 4.61 | 5.49 | 사랑하다 <sup>1</sup>             |      |      |
|    |      |      | 좋아하다 <sup>2</sup>             |      |      |
|    |      |      | 좋다 <sup>3</sup>               | 5.90 | 6.12 |
|    |      |      | 그립다 <sup>1</sup>              | 5.68 | 5.82 |
|    |      |      | 애타다 <sup>2</sup>              | 4.40 | 4.64 |
|    |      |      | 애틈다 <sup>2</sup> <sup>8</sup> | 4.02 | 3.82 |
|    |      |      | 답답하다 <sup>3</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3</sup>             | 4.82 | 5.56 |
|    |      |      | 아프다 <sup>4</sup>              |      |      |
|    |      |      | 괴롭다 <sup>5</sup>              | 4.76 | 5.42 |
| 연민 | 4.39 | 4.48 | 불쌍하다 <sup>1</sup>             | 4.74 | 5.74 |
|    |      |      | 애처롭다 <sup>2</sup>             | 3.88 | 4.01 |
|    |      |      | 가엸다 <sup>3</sup>              | 4.54 | 5.11 |
|    |      |      | 아프다 <sup>4</sup>              |      |      |
|    |      |      | 처연하다 <sup>4</sup>             | 2.89 | 2.35 |
|    |      |      | 애달포다 <sup>5</sup>             | 4.21 | 4.17 |
|    |      |      | 구슬포다 <sup>5</sup>             | 3.89 | 3.61 |
|    |      |      | 슬포다 <sup>3</sup>              | 5.08 | 5.85 |
|    |      |      | 가련하다 <sup>1</sup>             | 3.92 | 3.87 |
| 연정 | 3.97 | 4.05 | 그립다 <sup>1</sup>              | 5.68 | 5.82 |
|    |      |      | 애타다 <sup>2</sup>              | 4.40 | 4.64 |
|    |      |      | 애틈다 <sup>2</sup> <sup>8</sup> | 4.02 | 3.82 |
|    |      |      | 답답하다 <sup>3</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3</sup>             | 4.82 | 5.56 |
|    |      |      | 아프다 <sup>4</sup>              |      |      |
|    |      |      | 괴롭다 <sup>5</sup>              | 4.76 | 5.42 |

|      |      |      |                     |      |      |
|------|------|------|---------------------|------|------|
|      |      |      | 사모하다 <sup>1</sup>   | 4.45 | 4.47 |
|      |      |      | 애틀하다 <sup>2</sup>   | 4.81 | 4.66 |
|      |      |      | 섭섭하다 <sup>3</sup>   | 4.90 | 5.74 |
|      |      |      | 서운하다 <sup>4</sup>   | 4.69 | 5.76 |
|      |      |      | 아쉽다 <sup>4</sup>    | 5.20 | 5.84 |
|      |      |      | 불만족스럽다 <sup>5</sup> |      |      |
| 열광하다 | 4.87 | 4.61 | 기쁘다 <sup>1</sup>    | 5.98 | 6.26 |
|      |      |      | 흥분하다 <sup>1</sup>   | 4.92 | 5.61 |
| 우울하다 | 4.94 | 5.66 | 근심하다 <sup>1</sup>   | 3.97 | 4.69 |
|      |      |      | 답답하다 <sup>1</sup>   | 4.73 | 5.54 |
| 증오하다 | 4.54 | 5.18 | 사무치다 <sup>1</sup>   | 4.12 | 4.26 |
|      |      |      | 미워하다 <sup>1</sup>   |      |      |
| 질투하다 | 4.47 | 5.38 | 시기하다 <sup>1</sup>   | 4.08 | 4.79 |
|      |      |      | 샘내다 <sup>2</sup>    | 4.62 | 4.92 |
|      |      |      | 미워하다 <sup>1</sup>   |      |      |
| 쾌락   |      |      | 유쾌하다 <sup>1</sup>   | 5.31 | 5.51 |
|      |      |      | 상쾌하다 <sup>2</sup>   | 5.50 | 5.85 |
|      |      |      | 시원하다 <sup>3</sup>   |      |      |
|      |      |      | 후련하다 <sup>4</sup>   | 5.44 | 5.30 |
|      |      |      | 즐겁다 <sup>1</sup>    | 5.87 | 6.09 |
|      |      |      | 흐뭇하다 <sup>2</sup>   | 5.26 | 5.46 |
|      |      |      | 흡족하다 <sup>3</sup>   | 4.90 | 4.90 |
|      |      |      | 만족하다 <sup>3</sup>   | 5.34 | 5.92 |
|      |      |      | 기쁘다 <sup>2</sup>    | 5.98 | 6.26 |
| 한    | 3.86 | 4.43 | 원망하다 <sup>1</sup>   | 4.40 | 5.24 |
|      |      |      | 억울하다 <sup>1</sup>   | 4.77 | 5.42 |
|      |      |      | 분하다 <sup>2</sup>    | 4.59 | 5.06 |
|      |      |      | 화나다 <sup>3</sup>    | 4.86 | 5.65 |
|      |      |      | 원통하다 <sup>3</sup>   | 4.05 | 4.15 |
|      |      |      | 섭섭하다 <sup>3</sup>   | 4.90 | 5.74 |
|      |      |      | 서운하다 <sup>4</sup>   | 4.69 | 5.76 |

|      |      |      |                     |      |      |
|------|------|------|---------------------|------|------|
|      |      |      | 아쉽다 <sup>4</sup>    | 5.20 | 5.84 |
|      |      |      | 불만족스럽다 <sup>5</sup> |      |      |
|      |      |      | 답답하다 <sup>2</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1</sup>   | 4.82 | 5.56 |
|      |      |      | 아프다 <sup>2</sup>    |      |      |
|      |      |      | 괴롭다 <sup>3</sup>    | 4.76 | 5.42 |
|      |      |      | 슬프다 <sup>1</sup>    | 5.08 | 5.85 |
| 행복하다 | 5.88 | 6.08 | 만족하다 <sup>1</sup>   | 5.34 | 5.92 |
|      |      |      | 기쁘다 <sup>1</sup>    | 5.98 | 6.26 |
| 향수   | 4.29 | 4.54 | 그립다 <sup>1</sup>    | 5.68 | 5.82 |
|      |      |      | 애타다 <sup>2</sup>    | 4.40 | 4.64 |
|      |      |      | 애끓다 <sup>2통</sup>   | 4.02 | 3.82 |
|      |      |      | 답답하다 <sup>3</sup>   | 4.73 | 5.54 |
|      |      |      | 안타깝다 <sup>3</sup>   | 4.82 | 5.56 |
|      |      |      | 아프다 <sup>4</sup>    |      |      |
|      |      |      | 괴롭다 <sup>5</sup>    | 4.76 | 5.42 |
|      |      |      | 시름 <sup>1</sup>     |      |      |
|      |      |      | 근심하다 <sup>2</sup>   | 3.97 | 4.69 |
|      |      |      | 걱정하다 <sup>2</sup>   | 4.88 | 6.02 |
| 허무하다 | 4.40 | 5.29 | 허전하다 <sup>1</sup>   | 4.51 | 5.29 |
|      |      |      | 공허하다 <sup>2</sup>   | 4.03 | 3.94 |
|      |      |      | 서운하다 <sup>2</sup>   | 4.69 | 5.76 |
|      |      |      | 쓸쓸하다 <sup>1</sup>   | 4.84 | 5.41 |
|      |      |      | 적적하다 <sup>2</sup>   | 3.89 | 3.69 |
|      |      |      | 심심하다 <sup>3</sup>   | 4.43 | 5.76 |
|      |      |      | 지루하다 <sup>4</sup>   | 4.72 | 5.56 |
|      |      |      | 떠분하다 <sup>5</sup>   | 4.53 | 5.34 |
|      |      |      | 싫증 <sup>5</sup>     |      |      |
| 흥겹다  | 5.52 | 5.09 | 재미있다 <sup>1</sup>   | 5.70 | 6.19 |
|      |      |      | 유쾌하다 <sup>2</sup>   | 5.13 | 5.51 |
|      |      |      | 상쾌하다 <sup>3</sup>   | 5.50 | 5.85 |

|  |  |                   |      |      |
|--|--|-------------------|------|------|
|  |  | 시원하다 <sup>4</sup> |      |      |
|  |  | 후련하다 <sup>5</sup> | 5.44 | 5.30 |
|  |  | 즐겁다 <sup>1</sup>  | 5.87 | 6.09 |
|  |  | 흐뭇하다 <sup>2</sup> | 5.26 | 5.46 |
|  |  | 흡족하다 <sup>3</sup> | 4.90 | 4.90 |
|  |  | 만족하다 <sup>3</sup> | 5.34 | 5.92 |
|  |  | 기쁘다 <sup>2</sup>  | 5.98 | 6.26 |

\* 단어 의미망의 '동' 표시는 바로 위에 있는 정서 단어와 동의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어 의미망에 원형성과 친숙성의 점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덕웅 외(2000)의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에 있으면 삽입하였다.

정서 단어 '고독하다'의 사전적 의미<sup>11</sup>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이므로, '외롭다'와 '쓸쓸하다'는 '고독하다'의 1차 분화된 정서이고 이것이 그 의미망에 들어온다. 1차 분화된 정서 '외롭다'의 사전적 의미는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이므로, '쓸쓸하다'는 '외롭다'의 2차 분화된 정서이다. 그런데 2차 분화된 정서 '쓸쓸하다'는 1차 분화된 정서 '쓸쓸하다'와 중복된다. 이런 경우는 1차 분화된 정서 '쓸쓸하다'를 선택하고 2차 분화된 정서 '쓸쓸하다'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하 정서 단어의 의미망은 이를 따른다.

1차 분화된 정서 '쓸쓸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외롭고 적적하다.'이므로, '고독하다'의 1차 분화된 정서 '외롭다'를 제외한 '적적하다'가 2차 분화된 정서이다. 2차 분화된 정서 '적적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조용하고 쓸쓸하다.'와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이므로, 이미 분화된 정서를 제외한 '심심하다'가 3차 분화된 정서이다. 3차 분화된 정서 '심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이므로, '지루하다'는 4차 분화된 정서이다. 4차 분화된 정서 '지루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

11 이 연구에서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을 참고하였다.

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싫증이 나다.’이므로, ‘따분하다’와 ‘싫증’이 5차 분화된 정서이다.

5차 분화된 정서 ‘따분하다’와 ‘싫증’은 사전적 의미에 의해 더 분화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5차 분화된 정서까지로만 한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독하다’와 함께 ‘공포’, ‘동경하다’, ‘분노하다’, ‘불안하다’, ‘불행하다’, ‘비애’, ‘안락하다’, ‘애정’, ‘연민’, ‘연정’, ‘열광하다’, ‘우울하다’, ‘증오하다’, ‘질투하다’, ‘쾌락’, ‘한’, ‘행복하다’, ‘향수’, ‘허무하다’, ‘홍겹다’가 대표적인 정서 단어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단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명사로 통일하여 나타내면, 고독, 공포, 동경, 분노, 불안, 불행, 비애, 안락, 애정, 연민, 연정, 열광, 우울, 증오, 질투, 쾌락, 한, 행복, 향수, 홍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를 정서적 사고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2. 의지적 사고

리콥르는 인간을 의지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이미 18세기에 프랑스 철학자 멘느 드 비랑(Maine de Biran)은 “인간 생명성에 있어서 단순성과 인간성에 있어서 이중성(Homo simplex in vitalitate duplex in humanitate)”의 원리를 발견하여 결정론적 동물과는 다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로운 의지 노력에 주목했다(정기철, 2009: 267). 이처럼 인간을 의지적인 존재로 규정할 때,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의지적 사고를 중요하게 인식할

---

12 이러한 정서적 사고는 문학영역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서적 사고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많은 문학 작품에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전시가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애정은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다양한 장르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서적 사고가 문학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사용영역에서도 이 사고는 중요하다. 대표적인 정서적 사고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감이 그러하다. 특히 화법영역에서 공감적 화법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장삼섭(2006)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철학사 전편찬위원회(2009)에 의하면, 넓은 의미에서 의지는 동기에서 나와서 그 동기를 실현시키려 하는 활동을 추진시키려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 의지는 어떤 행위에서 나온 인간의 의식적인 결정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를 선택하고, 선택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며, 선악의 가치에 관계하여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이룬다고 한다. 의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점에서 정서와 구별된다. 그리고 의지는 정의(情意)의 의(意)에 해당하는 사고 용어라는 점에서 정의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의 의미를 넓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좁게 잡을 것인가에 있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의 사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지의 개념을 인접 학문에서 설정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국어교육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의지적 사고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자발적 활동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결정 혹은 선택을 행사하는 심적 행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520)를 구성하는 정신 작용이다. 여기에 서 결정과 선택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的場昭弘 외(오석철 외 역, 2011)에 의하면, 의지는 자유의 주체적인 능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능력으로서의 의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개인적 의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기의식으로서의 개인적 자아를 형성하는 본질이 된다. 따라서 의지적 사고는 관계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자기의 신념에 따른 행위를 실천하는 자기 지향적 정신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가 타인이나 외계로부터 자아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감정에 의한 기준을 통하여 모든 정신생활이나 행동을 영위하는 자아중심성(ego-centrism)으로서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567).

한편 加藤尙武 외(이신철 역, 2009)에 의하면, 헤겔에게서 의지의 본질은 자유이며, 자유의 세 가지 양태·단계에 상응하여 의지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한다. 의지의 양태는 자연적 의지, 자의적 의지, 이성적 의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이성적 의지의 단계는 법적 의지, 도덕적 의지, 인륜적 의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덕적 의지에 ‘지조’가, 인륜적 의지에 ‘정직’이 있다는 것이다. 지조와 정직을 의지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 가능하다면,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고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지조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절개: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깨끗한 태도.
2. 정절: 여자의 곧은 절개.
3. 기개: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 3.1. 용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 3.1.1. 기백: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
    - 3.1.2. 의기: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 또는 장한 마음.

다음으로, 정직과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진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2.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 2.1. 청백: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함.
3. 결백: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음.
  - 3.1. 순결: 마음에 사욕, 사념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이와 같이 절개, 정절, 기개, 용기, 기백, 의기는 지조와, 진실, 청렴, 청백,

결백, 순결은 정직과 유의 관계에 있으며, 사전적 의미에서 의지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지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지조, 절개, 정절, 기개, 용기, 기백, 의기, 정직, 진실, 청렴, 청백, 결백, 순결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3. 관계적 사고

오늘날 이기적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삶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상호 교섭적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관계적 사고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관계적 사고가 중시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도 관계적 사고는 필요하며, 정보화 사회를 의식 있게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관계적 사고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보들 간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은 삶의 관계성이 그만큼 더 섬세하게 관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인기, 2000: 17).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적 사고는 자아와 ‘타자 및 사회’의 상호 교섭적인 작용을 통하여 유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정신 작용이다.

이 사고는 의지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자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타적 행위를 실천하는 타자 지향적인 정신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타자의 태도

---

13 이러한 의지적 사고는 문학영역에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시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동재(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중 하나는 고결한 인격의 승화물로서 고고한 지조나 절개라고 한다. 그리고 신용순(2003)에 의하면, 정완영의 시조에는 기개, 청렴 등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적 사고가 문학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전이나 전기문류의 텍스트 등을 통해서도 이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를 고려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의식”(김주현, 2009: iv)으로서의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사랑, 자비, 존중, 배려, 희생, 봉사 등이 관계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사랑이 ‘그리워하다’와 ‘좋아하다’의 감정을 내포하면 이는 분명 정서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 ‘귀중히 여긴다’나 ‘돕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이는 관계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문학을 사랑한다.’거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보낸다.’라고 할 때, 이는 그리워함이나 좋아함의 정서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행위와도 거리가 멀다.

이와 유사한 정신 작용에는 자비도 있다. 사전적 의미로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다. 원래 자비의 자(慈)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비(悲)는 슬픔을 뜻한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생활 또는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말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생각하는 생활이며, 나아가 그 남의 불행 가운데 그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주는 활동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563-564). 이는 곧 타인을 위해 베푸는 혜택인 것이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사랑과 자비는 인간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존재적 가치의 인식과 더불어 이타주의적인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존중도 있다. 존중은 모든 생명체를 귀중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명 존중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명체와도 유관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유의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판단, 평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대접하려는 정신적 행위이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귀중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256).

사회적 타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사회적 자아인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사회적 타자의 존중에 의해서 실현된다. 만약 사회적 타자의 존중이 없다면, 사회적 자아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적 관계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자존을 위해서는 먼저 타자를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sup>14</sup>

이러한 존중은 배려와도 관련된다.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배려적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열망을 갖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려함이 관계를 발견하거나 만들어 내며, 나아가 관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은 일종의 사고인 셈이다(Matthew Lipman, 박진환 외 역, 2005: 336-339).

이외에도 이타적 행위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신 작용에는 희생과 봉사가 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이다. 加藤尙武 외(이신철 역, 2009)에 의하면, 희생은 자기를 기꺼이 방기함을 통해 좀 더 커다란 보편화된 자기를 획득하는 것이며,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생은 타자를 위한 관계 지향적 사고로 볼 수 있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봉사는 활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봉사는 활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봉사는 “타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대가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형성”<sup>15</sup>한다는 점에서

---

14 존중을 사고의 관점에서 보는 이는 주승택(2001)이다. 그런데 존중은 연구자에 따라 정서로 보는 경우(한덕웅 외, 2000)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박인조, 2001; 박인조 외, 2005; 이준웅 외, 2008)도 있다. 다만, 존중이 배려와 밀접한 관계에서 놓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사고로 보고자 한다.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이타적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중요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 4. 윤리적 사고

윤리적 사고는 윤리 교과와 관련되는 사고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와 관련해서는 국어적 사고로, 과학 교과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사고로 불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적 사고는 윤리 교과와 밀접하다.

다만, 국어교육에서는 언어와 주체의 관계성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주체의 가치 판단 및 세계관의 문제와 관계되는 윤리적 사고 등이 추가로 요청된다. 윤리적 사고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를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하는 정신 작용이다(김광해 외, 1998: 18-19; 최홍원, 2010: 341에서 재인용).

윤리적 사고는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서 주체가 선악이나 가치를 판단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근본이 될 수 있는 사고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악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이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 도리와 관련하여 생산자(필자, 화자)는 언어로 의미화하고 수용자(독자, 청자)는 의미화 된 언어를 재구성함으로써 윤리적 사고와 언어의 상호작용이

---

16 이외에도 관계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나눔(분배), 양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계적 사고는 주로 개인 상호 간의 관계가 중요한 사교적 언어사용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이도영, 1998: 110). 특히, 화법영역의 경우에 배려적 화법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고가 문학영역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권정생의 단편동화 「옷들 감나무 집 활아 버지」,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강아지 똥」,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등에는 대상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가 작용하고 있다(박준영, 2012: 56-59). 그리고 이덕화(2010)에 의하면, 한말숙의 「아름다운 영가」에서 오 현도사는 자신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타자 지향적인 의식을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한다.

일어나는 것이다.

윤리적 사고는 윤리 의식과도 연관된다. 오늘날 윤리 의식은 개인적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윤리, 언론 윤리, 정보통신 윤리, 직업 윤리, 생명 윤리 등 다양하게 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 요구되는 윤리적 사고는 이러한 의식을 지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만, 국어과 정의적 사고 영역에서의 윤리적 사고는 인간이 지녀야 할 보편적이지도 당위적인 사고이어야 한다.<sup>17</sup>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에 의하면, 당위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관념론자가 도덕의 기초를 부여할 때, 존재의 법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도덕의 법칙이 주어진다고 하여, 도덕을 기초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덕을 기초 짓는 사고로서 윤리적 사고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은 정의, 의리, 신의, 책임, 효도 등이 될 것이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2)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의 ‘정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종교적 관행의 존중이 합쳐져 만들어진 속어로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할 도리’라는 윤리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롤스의 『정의론』의 간행으로 영어권의 도덕철학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어 정의는 자유, 평등, 복지라는 현대사회의 중요 문제와 관련하여 논해야 하는 테마로서 재(再)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구속이나 속박, 불평등, 불이익을 내포하는 불의에 맞서려는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의리에서 ‘의’자는, ① 마땅한 것(宜), ② 올바른 것(善), ③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의 구체적 모습(儀), ④ 남과 육친(肉親)과 같은 관계를 맺음(義兄弟), ⑤ 군자의 뜻(意味)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

17 특히 문학교육에서는 도덕이나 윤리교과와 달리 교술적이거나 설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 언어로 형상화된 윤리를 배우고, 이를 학습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김대행 외, 2013: 207).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①·②·③이라 할 수 있다. 즉, 의 개념은 ‘올바름’이라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마땅함’이라는 상황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실천하는 인간의 당위적 규범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는 인식 원리의 측면보다 실천 행위의 속성이 강하다. 한편, 의리는 송대에 이르러 맹자의 사상이 다시 부각되고, 의를 실천해야 하는 근본 이유와 근거까지 밝혀 의에 이(理)가 덧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의리사상이 발달하였는데, 유교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면서 충의와 신의를 강조하게 된다.<sup>18</sup> 이와 같이 충의와 신의를 강조하는 의리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당위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경영자의 윤리 의식이나 윤리 경영, 언론 윤리 강령 등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신의이다. 특히 ‘사회적 신의’라는 말을 함으로써 신의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사회적 윤리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신의는 개인적 윤리 의식과 사회적 윤리 의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리와 구분하여 윤리적 사고의 한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윤리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에는 책임도 있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에 의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에 관하여 자타의 평가를 받고, 이것에 의거하여 자책이든 남으로부터의 비난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상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sup>19</sup>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하는 자가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받아들일 것, 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정일 것, 행위의 결과가 당연히 예측되는 것일 것 등이 요구되며, 이것이 윤리학상의 책임의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책임은 윤리적 책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효도가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

1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효가 도덕규범의 기초가 되고, 더욱 확대되어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뿌리박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만, 개화사상이 일어나면서 윤리적 가치는 분화되어 효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효도의 윤리적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 참된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효도는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매우 중요하다.<sup>19</sup>

## 5. 형상적 사고

상상력은 이미지의 생산과 형상화에 작용하는 심리적 속성이다. 그 자체가 인지-정서적 통합 능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또한 우리에게 감각적 체험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조성하는 작용을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것은 형상적 사고이다(최지현, 2000: 33-34). 그렇다면 형상적 사고란 마음과 감각에 의해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정신 작용이다. 이러한 사고의 하위 유형에는 비유, 상징, 심상 등이 있다.

---

19 중학교 국어교과서 생태시를 분석한 하태일(2007)에 의하면, 생태환경을 고발한 시를 통하여 인간의 윤리적 사고를 신장시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경운(2009)에 의하면, 근대의 정의(正義)를 이광수와 신채호를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시적 정의(正義)란 시나 소설 속의 권선징악인과 옹보의 사상으로 17세기 후반 영국의 문학 비평가이며 프랑스 형식주의·신고전주의 비평 원리를 영국에 소개한 토머스 라이머가 쓴 말로 여러 등장인물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비례하여 작품 마지막에서 속세의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만들어 낸 용어라고 한다.

김대행 외(2013)에 의하면, 문학이 다른 표현 양식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상을 통해 표현한다는 점을 들면서,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비유를 설정하고 있다. 비유에 대한 문학적 사고의 속성을 알고 이해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고 작용을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게 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표현력을 배양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비유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상징 또한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이 될 수 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징은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문학적 상징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내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상호(2010)에 의하면, 상징하기는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상징하기를 통해 특정한 가치나 정서를 이상화하여 표현하거나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인식 태도를 교육 내용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을 형상이라 부르며, 그 외에 형상은 심상이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의식 속에 외적 자극을 직접 받지 않고 떠오른 감각적인 상을 말한다. 또한 넓게는 외적 자극에 의해 얻어진 감각적 상(象)을 포함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심상은 감각적 이미지로서 형상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형상적 사고로 감정이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감정이입은 1858년 독일의 헤르만 로체(H. T. Lotze)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미학자인 립스(T. Lipps)가 미학 이론으로 정리하였으며,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독자는 작중 인물이나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동안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한다. 즉, 예술 이론에서 감정이입이란 대상과 인간의 감정이 완전하게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적 화자나 작중 인물의 정서가 대상에 투영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감정이입은 정서적 사고와 상관성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세계의 외적 대상과의 일치를 꾀한다는 점은 곧 형상적 사고가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정서 및 그 정서와 일치된 대상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이입을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 6. 심미적 사고

어떤 대상을 감상하고 지각하고 즐기는 경험을 심미적 경험이라고 한다. 좁게 규정하면 기예적 경험과 구별되고 넓게 규정하면 기예적 경험의 차원을 포함하며, 때로는 예술적 경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기예적 활동에만 종사하고 감상하는 사람은 언제나 심미적 활동에만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기교는 궁극적으로 ‘애호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 작품이 진정으로 기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심미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감상하는 사람은 단순히 보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기예적 과정에 대한 어느 수준의 투시적 상상력에 호소해야 한다. 이와 같이 좁은 의미의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을 기예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예적 경험의 차원을 포함하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넓은 의미의 심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438). 따라서 심미적 경험은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미적 사고 또한 텍스트 수용과 생산의 측면에 모두 작용하는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심미적 사고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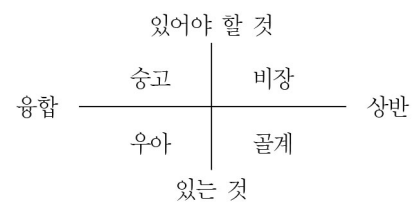
20 문학영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 중의 하나가 형상적 사고이며, 이 사고는 문학 작품의 미적 가치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런데 형상적 사고가 문학영역의 핵심적인 사고인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언어사용영역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비유 등을 통해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에서도 이 사고는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미 구조를 적절히 감상하고 지각하여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나타낸 의미(박인기 외, 2005: 79)에 대한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 작용이다.<sup>21</sup>

한편, 대상에 대한 질적 특성은 심미적 사고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 나무’가 수많은 다른 나무들이나 물체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에 편재된 질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여러 가지의 음악 작품을 듣고 베토벤의 작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베토벤의 작품에 편재된 질성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전화 목소리로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닌 편재적 질성(pervasive quality)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성은 심미적 사고의 내용이 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739).

심미적 사고의 내용으로서의 질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조동일(2009)에 의하면, 그것은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융합’과 ‘상반’이며, 이 관계에 의해 송고, 우아, 비장, 골계라는 미적 범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골계는 부드러운 골계와 사나운 골계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는 해학이 후자에는 풍자가 있다고 한다.<sup>22</sup>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미적 범주의 구분은 <그림 1>과 같다.<sup>23</sup>



**그림 1.** 조동일(2009: 99)의 미적 범주

21 원자경(2009)에 의하면, 심미적 사고 과정이란, 감상적 느낌과 달리 지각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해되는 사고의 과정이 수반되어서야 이르게 되는, 미적 느낌과 가치라고 한다.

22 한편 한용환(1999)과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에 의하면, 보통 ‘우스꽝스러움’으로 번역되는 골계(comic)는 웃음을 자아내는 문학의 모든 요소에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기지(wit), 풍자(satire), 반어(irony), 해학(humor)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

23 다만, 이 연구에서는 미적 범주에 대한 질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는 달리 김창현(1998)에 의하면, 질성은 ‘본연미’, ‘특성미’, ‘영웅적’, ‘범인적’이며, 이 관계에 의해 숭고, 우아, 비장, 골계라는 기본적인 미적 범주로 구분된다고 한다.<sup>24</sup> 이를 <그림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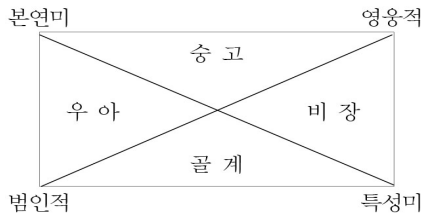


그림 2. 김창현(1998: 26)의 미적 범주

연구자에 따라 심미적 사고의 내용으로서의 질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미적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숭고, 우아, 비장, 골계이다. 숭고미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이다. 우아미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전적인 기품과 멋을 드러내는 미의식이다. 비장미는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한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미의식이며, 골계미는 구속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하려는 각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의식이다(구인환, 2006a: 93-94).<sup>25</sup>

이러한 미적 범주는 미적 양태나 기본미라고도 하는데, 월간미술(2007)

24 이외에도 김창현(1998)에 의하면, 특히 이야기(story)를 지니는 예술 작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미적 범주와는 별도로 ‘성취미’, ‘상실미’, ‘위기미’를 동적이고 구조적인 미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25 미의식이란 일정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정신적 활동에 의해 미적 가치의 경험의 성립될 때를 말한다. 이는 문학적 형상이 창조의 과정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느냐와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두 측면에서 작용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321-322). 이렇게 보면 심미적 사고는 형상적 사고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에 의하면, 미적 범주는 미의 다양한 양태를 일정한 기본적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송고, 우아, 비장, 골게는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정의적 사고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를 모색하였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인접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문 간의 통섭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접 학문의 보편성과 국어교육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선행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

---

26 이러한 심미적 사고는 문학 중심적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사용영역에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상 언어생활에서 심미적 사고를 추구하는 텍스트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오락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도영(1998)에 의하면, 일상 언어생활에서 심미성을 추구하는 ‘농담, 유머’ 등과 같은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골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심미적 사고의 작용 범위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한편 최남정(2013)에 의하면, 교육의 영역에 미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는 Schiller로서, 그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사회로 대표되는 근대라는 시대가 인간이성의 발달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상실하여 인간 소외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Schiller가 제시하고 있는 조화롭고 통일적인 미적 인간은 물리적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숭고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미적 사고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인지적 사고 영역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의적 사고 영역에 대한 유형화가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국어과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의적 사고의 유형 설정의 대강의 면모를 갖추어 보았다.

정의적 사고는 사고의 속성이나 가치와 관련된 질적 측면에서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사고의 수행과 관련된 과정적 측면에서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되었다. 먼저,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이다. 이들 유형에서 감정 상태나 감정의 분화된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정서적 사고의 핵심축이며, 갈등적 상황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을 행사하는 것이 의지적 사고의 핵심축이고, 유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계적 사고의 핵심축이다. 그리고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를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하는 것이 윤리적 사고의 핵심축이며, 마음과 감각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것이 형상적 사고의 핵심축이고,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나타난 의미에 대한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심미적 사고의 핵심축이다. 이들 핵심축이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와 변별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유형은 고유한 속성을 지니면서 어떤 층위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형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층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의적 사고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사고가 완성된 다음에 다른 사고의 습득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개념 차원에서 그 경계가 선명한 것도 아니기”(이삼형 외 7인, 2007: 225)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적 사고가 언어로 의미화된 여러 장르의 텍스트 관계를 층위로 설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의적 사고의 여섯 가지 유형의 관계를 층위로 정립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약 층위가 설정된다면, 그 층위는 사고의 수

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사고 유형을 높은 수준의 사고와 낮은 수준의 사고라는 이분법적 체계로의 환원을 의미한다. 어떤 사고는 고차적 사고로, 또 어떤 사고는 저차적 사고로 단정하기란 어렵다(김종률, 2014: 338).

다음으로, 유형의 변별 기준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이 설정될 수 있다. 정서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고독, 공포, 동경, 분노, 불안, 불행, 비애, 안락, 애정, 연민, 연정, 열광, 우울, 증오, 질투, 쾌락, 한, 행복, 향수, 흥이다. 다만 이들 사고는 대표성이 있는 것만을 설정한 것이다. 의지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지조, 절개, 정절, 기개, 용기, 기백, 의기, 정직, 진실, 청렴, 청백, 결백, 순결이다. 관계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사랑, 자비, 존중, 배려, 희생, 봉사이고,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정의, 의리, 신의, 책임, 효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비유, 상징, 심상, 감정이입이며,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숭고, 우아, 비장, 골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적 사고의 유형과 그 하위 유형은 명확하게 하나의 경계선을 긋고 그 속에서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인위적으로 적당한 경계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정했을 뿐, 각각의 유형이 위계적이고 절대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적 사고의 각 유형은 위계성이나 절대성보다 상호관련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각 유형끼리 상관적이며, 그 하위 유형은 하위 유형끼리 상관적이다. 이는 사고가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맞물려 일어나기 때문이다(이삼형 외, 2007: 170) 특히 은유나 상징적 언어를 해석하고 의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 사고는 일반적 인지 기능이나 일반적 사고 기능에는 없는 미, 정서, 윤리 등 가치와 태도에 대한 사고가 함께 수반되기도 하는 사고이다(원자경, 2009: 203). 그리고 형상적 사고에 의해 정서나 의지, 관계와 윤리, 심미 등 모든 대상에 대한 문학적 형상성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적 사고를 문학적 사고의 영역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문학, 문법, 언어사용을 모두 아우르는 사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의적 사고가 문학(교육)에 밀접한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문법(교육) 및 언어사용(교육)에 불필요한 사고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담화)의 수용과 생산에서도 정의적 사고는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학과 문법 및 언어사용의 상호관련성이나 상호보완성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의 연구나 실행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사고 과정에 대한 실천적 사례로서의 텍스트 분석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유형과 그 하위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에도 필자의 연구 부족으로 더 설정하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4. 7. 29.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희성(2010), 「지역 방언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텍스트 중심의 통합 문법 교육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제8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5-34.
- 구인환(2006a),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 \_\_\_\_\_(2006b),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 김대행 · 우한용 · 정병현 · 윤여탁 · 김종철 · 김중신 · 김동환 · 정재찬(2013),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은성(2006a),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6b), 「문법 교육의 태도 영역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문법 교육』 제5호,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7-48.
- 김종률(2011), 『논술 사고 교육론』, 한국학술정보.
- \_\_\_\_\_(2014), 「국어와 인지적 사고 영역의 체계화 연구」, 『국어교육』 제14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301-348.
- 김종철(1996),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 김주현(2009), 「사회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아개념' 함양 방안—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신(1999),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 11-40.
- 김창현(1998), 「미적 범주에 대하여」, 『도남학보』 제17집, 도남학회, pp. 17-44.
-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다문화 사회의 통합형 문법교육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제9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5-46.
- 민재원(2013),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기(2000), 「국어와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1호, 국어교육학회, pp. 1-25.
- 박인기 · 김창원 · 공숙자 · 정유진 · 박창균 · 이지영 · 양경희(2005),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 박인조(2001), 「한국어 감정단어의 분석: 감정단어 목록마련과 차원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조 · 민경환(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pp. 109-129.
- 박준영(2012), 「권정생 단편동화에 내포된 배려적 사고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4),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7),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신웅순(2003), 「정완영 시조의 선비 의식」, 『한국시문학』 제13집, 한국시문학회, pp. 219-235.
- 원자경(2009), 「사고력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문학교육학』 제30호.

- 한국문학교육학회, pp. 181-209.
- 월간미술 엮음(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이덕화(2010), 「한말숙의 『아름다운 영가(靈歌)』에 나타난 타자윤리학」, 『새국어교육』 제8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477-495.
-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재(2013),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동방한문학』 제57집, 동방한문학회, pp. 247-277.
- 이삼형 · 김중신 · 김창원 · 이성영 · 정재찬 · 서혁 · 심영택 · 박수자(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 이상호(2010), 「강호가사에 나타난 형상적 사고의 특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57-85.
- 이준웅 · 송현주 · 나은경 · 김현석(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 언어학보』 제52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pp. 85-117.
- 장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운(2009), 「근대 ‘정의(正義)’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광수와 신채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 287-308.
- 정기철(2009), 「리프리의 의지의 철학—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제23집, 한국해석학회, pp. 265-290.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 조동일(2009),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 집문당.
- 주승택(2001), 「퇴계 이항의 인간존중적 사고」, 『퇴계학』 제12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pp. 33-48.
-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 최남정(2013), 「유아교사 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 심미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현(2000),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제11호, 국어교육학회, pp. 27-46.
- 최현석(2012),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 최홍원(2010), 「국어과 사고 영역 체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제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319-351.
- 하태일(2007),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생태시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덕웅 · 강혜자(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9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pp. 63-99.
- 한용환(1999),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 한창훈(2003), 「중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정의적 영역 평가의 문제」, 『문학교육학』 제1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 93-116.
- 황정현(2003),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정의적 영역의 문제와 교육방법」, 『문학교육학』 제1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 69-92.
- 加藤尙武・久保陽一・幸津國生・高山 守・瀧口清榮・山口誠一, 이신철 역(2009), 『헤겔사전』, 도서출판 b.
- 的場昭弘・内田 弘・石塚正英・柴田隆行, 오석철・이신철 역(2011), 『맑스사전』, 도서출판 b.
- 坂部恵・有福孝岳, 이신철 역(2009), 『칸트사전』, 도서출판 b.
- Krathwohl, D. R., Bloom, B. S., & Masia, B. B. (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 handbook 2 : Affective Domain*, New York: Longman.
- Lipman, Matthew, 박진환・김혜숙 역(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 연구

김종률

이 연구의 목적은 정의적 사고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인접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인접 학문의 보편성과 국어교육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국어과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의적 사고의 유형 설정의 대강의 면모를 갖추어 보았다. 정의적 사고는 질적 측면에서의 유형과 과정적 측면에서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이다. 정서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고독, 공포, 동경, 분노 등이며, 의지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지조, 절개, 정직, 진실 등이다. 관계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사랑, 자비, 존중, 배려 등이고, 윤리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정의, 의리, 신의, 책임 등이다. 그리고 형상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비유, 상징, 심상, 감정이입이며, 심미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숭고, 우아, 비장, 골계이다.

그런데 정의적 사고의 각 유형은 위계성이나 절대성보다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은 각 유형끼리 상관적이며, 그 하위 유형은 하위 유형끼리 상관적이다.

**핵심어** 정의적 사고,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

## A Study on Typing of Korean Language Affective Thinking

Kim Jongry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yping of Korean language affective thinking based on previous study. Universality of related study and specific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the type of affective thinking. Considering this, the affective thinking may be set to type of qualitative aspect and the sub-type of processional aspect. The type of affective thinking is emotional thinking, intentional thinking, relational thinking, ethical thinking, figurative thinking, aesthetic thinking. The sub-type of emotional thinking is loneliness, fear, longing, anger etc. and the sub-type of intentional thinking is constancy, integrity, honesty, truth etc.. The sub-type of relational thinking is love[meaning as preciousness and help], mercy, respect, consideration etc. and the sub-type of ethical thinking is justice, loyalty[義理], faith, responsibility etc.. The sub-type of figurative thinking is figure, symbol, image, empathy and the sub-type of aesthetic thinking is sublimity, elegance, tragic, comic. These the type of affective thinking and the sub-type of emotional thinking has a correlation rather than hierarchy or absoluteness with each.

**KEYWORDS** Affective thinking, Emotional thinking, Intentional thinking, Relational thinking, Ethical thinking, Figurative thinking, Aesthetic thinking